

말라리아 예방 안내

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어느덧 더운 여름이 되어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우리나라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(5~10월)에 주로 인천, 경기, 강원 북부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다발생지역: 인천(강화 등), 경기(파주, 김포, 고양, 연천 등) 및 강원(철원, 고성 등) 북부



□ 주요증상

- 말라리아 초기 증상(발열, 오한, 두통 등)은 코로나-19, 감기 몸살과 유사하고, 최근에는 초기 증상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

※ 가벼운 감기 몸살이나 냉방병으로 여겨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은 줄 알았는데, 며칠 후 다시 증상이 심해져 뒤늦게 말라리아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

-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다양(7일~12개월)하여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발병하기도 합니다.

□ 진료 및 검사

- 말라리아 다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기에 물린 후 발열,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기 몸살시 말라리아도 반드시 의심하여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- 진단이 늦어지면 모기가 나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물어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.
- 말라리아는 신속 진단 검사로 15분 만에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
□ 예방수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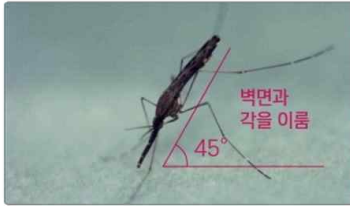
- (야간활동 주의)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야간(밤 10시~새벽 4시)에 활발하게 활동하며, 어두운 색의 옷을 입거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주로 물고 있습니다. 다 발생지역에서는 야간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(주변 환경관리)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점검하고,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세요.
- 살충제(모기향, 에어로졸 등)는 모기 제거에 도움이 되며, 밀폐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(<http://www.kdca.go.kr>)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

말라리아란?

- 말라리아 원충(병원체)에 감염된 모기(매개체)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급성열성질환입니다.
-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는 얼룩날개모기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로
- 일반모기와 달리 앉아있을 때 공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, 비행시 '왕'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



[말라리아 매개 모기]



[일반모기]

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발생국가입니다

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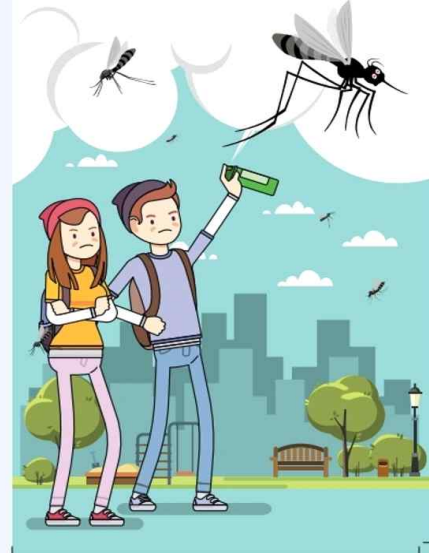


국내 주요 발생 지역



질병관리청

말라리아 감염예방 6가지만 실천하세요



말라리아 예방수칙 여섯가지



1 야간활동 자제



-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

3 밝은색의 긴옷 착용



- 야간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옷을 입고

5 모기 서식처 제거



- 주 1회 집 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,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

2 운동후엔 샤워



- 운동 시 땀으로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

4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



- 상처나 얼굴주변을 피해 기피제를 사용하세요

6 방충망 정비



- 모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취침 전 방충망을 점검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주세요

2021년 6월 14일
인천서희학교장